광양 재배농민들 일본 매실 최대 주산지 연수 동행 취재

매실산업 미래, 가공제품에 답있다

광양 매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공품 개발과 신품종 연구가 시급하다. 일본을 방문한 광양 재배농민들이 우메연구소 매실단지 〈왼쪽〉와 이와모토식품의 '우메보시'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있다.

"가공품 개발과 신품종 연구 등이 미래 매실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20일 방문한 일본 규슈(九州) 와카야마(和歌山)현 우메연구소.

타니모토 요시히라 소장은 광양 매실재배 농가들에게 "매실 수확 후 열매로 판매하는 것보다 '우메보시'(매실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전통 장아찌)로 가공해 판매하면 5~6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일 3박4일간 광양지역 매실재배농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20여명과 함께 와카야마현에 위치한 매실연구소와 매실가공업체, 매실재배단지 등지를 동행 취재했다. 와카야마현은 일본 총매실 생산량(10만t)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최대 매실 주산지이다.

미래의 광양시 매실산업 발전을 위해 일본 매실산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를 살펴봤다.

◇200년전부터 매실개량에 주력=지난 2003년 설립된 우메연구소는 매실 신품종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었다. 연구진은 크게 재배·육종팀과 생리·환경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재배·육종팀은 품질이 좋은 매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재배기술, 교잡육종, 신품종 산지 도입, 생리장애과수 대책 등에 주력한다. 생리·환경팀은 재배환경이 매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병해충 방제기술과 매실의 기능성분을 높이는 재배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와카야마현의 매실 재배역사는 2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고전이란 농부가 개량한 매실품종(고전매)을 1902년부터 대량 재배하며 매실 주산지로 자리잡았다. 이후 매실 품종개량을 거듭하며 1965년부터 '남고매실'을 본격 재배, 현재 일본의 대표 매실로 사랑을 받고 있다.

우선 광양과 와카야마현의 매실품종과 수확시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광양지역이

일본 전통 매실 장아찌 '우메보시'

광양은 생매실이 91%
日선 70%가 가공 판매
수익 5~6배 창출

가공상품 100종 늘리고
신품종 연구 개발 절실

'청매실'(백가하 품종)을 91% 재배하는 반면 와카야마현의 경우 다익은 상태(홍매실)에서 수확하는 '남고매실'이 85%를 차지한다. 특히 매실나무 밑에 수확용 그물망을 경사지게 설치해 수확하는 '자연낙하 수확 시스템'을 적용해 인건비가 절감됨은 물론 작업 능률이 높고, 상품의 질도 우수하다. 무엇보다 와카야마현 매실농가에서 생산된 6만t의 매실은 ▲가공용 70% ▲청매실 25% ▲주스·매실주 5%로 소비된다.

와카야마현 400여 농가는 '남고매실'과 청매실 등을 재배해 각 농가별로 식품공장(가공)과 판매장을 특색있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가들은 매실 80%와 소금 20% 비율로 혼합해 대형 나무통(1t)에 2~4주 절임한다. 이후 절임매실을 꺼내 물로 세척한 후 3~4일 햇볕에 말려 대표 특산품인 '우메보시'를 비롯한 150~200여종의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판매한다.

◇청매실 이용 가공제품도 눈길=와카야마현 (주)이와모토식품(岩本食品)은 1906년 설립 이후 109년 동안 200여 종의 매실 가공식품을 개발·제조해 판매하는 기업형 농가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매실을 가공하는 직영 공장과 함께 농장·공장 인근에 판매장(50평)을 운영하고 있고, 도쿄에도 판매장 1곳을 직영하고 있다.

생산된 매실 가공제품은 일본 전역의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인터넷, 택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모토(34) 사장은 "3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해 농장에서 생산한 매실 30t을 직영 공장에서 상품화한다"며 "직영 판매장 등을 통해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모토 식품의 가공상품 중 청매실을 이용한 '삼일월매('三日月梅) 제품이 눈에 띈다. '삼일월매'는 청매실 수확→매실씨 빼기→설탕과 1 : 1 저장(60일)→소금물로 씻어낸 자소엽으로 매실을 말아 소금과 8 : 2 절임(30일)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진공 포장해 상품화한 제품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가공식품이란 평가를 받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광양 매실제품 다양화 전환 절실=청매실 재배가 90% 이상 차지하는 광양 매실산업의 도약을 위해 단순 생산이 아닌 가공제품 개발과 6차산업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매실가공 제품의 다양화로 농가소득을 5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차별화된 매실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삼일월매'와 유사한 매실 가공제품과 신품종 매실나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소 설치가 절실하다.

또한 매실 가공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30여개에 불과한 가공제품을 100여종으로 늘리고, 소포장에서 고가에 이르는 상품 다양화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광양지역은 3300여농가(1400여ha)에서 연간 1만1000여t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52%(5만6081t)가 농협을 통해, 39%(4359t)가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현=글·사진 박영진기자

광양~여수 부생가스 해저터널 조성 본격화

전남도, 포스코 등과 협약 체결
2400억 투입 2018년 완공

광양~여수산단간 부생(副生)가스(부산물) 교환망 구축을 위한 해저터널 사업〈광주일보 2014년 10월 07일 11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GS칼텍스, 전남개발공사, 여수상공회의소, 페트로코리아, 광양시, 여수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교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그린가스텍에서 여수시 삼일동 GS칼텍스 낙포부두까지 양 산단을 관통하는 3.98㎞ 구간의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고 2108년 완공 목표다. 해저관로 공사에는 연약지반에 터널을 뚫을때 쓰이는 '실드(Shild) 공법'이 적용된다.

해저관로를 통해 광양제철의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수소 등을 여수산단으로 보낸다. 여수산단 역시 석유화학제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산화나트륨 등 부산물을 광양산단으로 전달하게 된다.

전남도는 해저터널 인·허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SPC가 설립되면 최단 기간에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관련 기업들은 물류시간 단축과 환경오염 저감 등 연간 12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결혼이민자 '通-通 공감 한마당 축제' 성료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최근 광양 중동교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자조모임 '통(通)-통(通) 공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 세계인의 날 슬로건인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230명과 가족, 친구 70명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국 전통문화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적인 가정생활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지영(베트남), 장단(중국)씨가 광양시장 표창을 받았다.

손경화 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도심 벽면녹화로 환경·산업 상생도시 만든다

오늘 덩굴식물 심기 행사

광양시가 도심 벽면녹화로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도시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29일 중마동에 위치한 백운고등학교에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도비 1억5000만원, 시비 2억원)의 하나로 도심 벽면녹화 덩굴식물 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낮추고, 도시 미관을 조성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4개 단체에 대해 벽면녹화식물 돌보미 위촉장 수여와 함께 '숲속의 전남'과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식후 행사로 백운고에서 남양파크 750여m 구간에 백운산 자생 식물로 확인된 담쟁이와 송악, 마삭줄, 백화등 2만1000여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시는 벽면녹화 식물 돌보미와 협조해 식재된 식물들에 대한 물주기, 잡초제거, 거름주기 등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오는 9~10월에 시청사를 비롯해 학교, 공동주택, 주요 도로변 등 통행인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벽면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까지 덩굴식물 100만본을 목표로 민·관·산·학 상호 협력을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옹벽이나 담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벽면녹화 2만㎡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10.4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